
일본의 주요 컴퓨터회사 85년도결산

일본의 주요 컴퓨터메이커 10개사의 85년도 결산을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일본 주요메이커의 컴퓨터부문 매상고 (단위: 억엔)

	85년 /신장율	국내	수출	86년계획 /신장율
富士通	10280 / 17.6%	8457	1823	11700 / 13.8%
日本電氣	8130 / 23.0	6970	1160	9500 / 16.9
日立製作所	6000 / 13.0	4980	1020	7000 / 17.0
東芝	2930 / 27.0	2410	520	3500 / 20.0
沖電氣工業	1972 / 7.0	1344	628	2050 / 4.0
三菱電氣	1650 / 0.0	1353	297	1780 / 8.0
日本IBM	9145 / 19.0	6586	2559	10700 / 17.0
日本유니백	1351 / 11.2	1351	0	1500 / 11.0
日本NCR	1021 / 13.6	837	184	--- / ---
BURROUGHS	817 / 1.3	734	83	--- / ---

*1 일본IBM, BURROUGHS 는 12월결산, NCR은 11월결산, 기타 3월결산.

*2 일본유니백의 매상고는 일본유니백정보시스템의 매상고 228억포함.

*3 일본IBM의 86년도계획은 日經컴퓨터지의 추정.

富士通이 컴퓨터부문의 매상고에서 1조엔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10개사중 7개사가 전년대비 2자리 증가를 달성하였고 단지 沖電氣工業, 三菱電機, BURROUGHS 3사의 신장율은 1자리 또는 제자리로 하위메이커와의 신장율의 격차가 명확히 나타났다.

84년도 결산과 대비해 보면 엔고, 달러안정과 미국의 컴퓨터 불황등에 의해 수출환경이 악화되어 대부분의 메이커의 신장율이 둔화하였고, 금년에는 수출의 위축이 예측되어 각사는 수익증대에 고심하고 있다.

세계판도에 큰 변화는 없다. 국내판매에서 84년도에 日本 IBM을 제치고 올라간 日本電氣가 85년도에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 BURROUGH사는 오피스컴퓨터 B90/900 등이 부진하여 한자리 성장에 머물렀다. 범용기시장은 IBM3090(시에라)의 출하와 각사 대항기종의 판매전에서 초대형기를 중심으로 활기있다. 일본IBM은 3090을 70대, 308X를 90대 출하하였고, 日電도 초대형기(Acos 750 이상)를 93대 출하했다.

富士通도 수주기준으로 슈퍼컴퓨터 VP 시리즈가 26대, M-780이 30대, M-300의 대형기종(360R 이상) 488대의 실적을 올렸다. 富士通 대형기종(VP, M-380/360)의 매상고는 2833억엔으로 26.5% 신장했고, 이 신장율은 이 회사의 매상고 신장율 중에서 퍼스컴의 신장율 26.6%(매상고 576억엔)과 함께 가장높아 1조엔 돌파의 원동력이 되었다. 日立도 M-680의 50대를 포함한 초대형기로 208대를 수주하였고, 三菱의 대형, 중형기종의 출하는 130대이다.

한편, OA기기 분야에서도 각사는 순조로운 신장율을 보였다. 퍼스컴은 신장율이 가장 높은 日本電氣의 출하량이 61만 5000대(전년대비 1% 증가), 금액으로 2401억엔(전년대비 19% 증가)이고, 일본전자공업진흥협의회 85년도 출하실적에 대한 점유율에서는 대수 46%, 금액 55%로 84년도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富士通은 576억엔(전년대비 27% 증가), 日立은 500억엔(66% 증가, PT-1/EX와 2020/2050도 포함)으로 日電은 발군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日本 IBM은 5550을 7만대 출하(금액은 불명)했다.

매상고신장율에서 27%로 최고를 보이는 東蘆는 OA 기기중에서도 워드프로세서가 아주 강세이고, 주변기기(워드프로세서, 퍼스컴)의 매상고는 1740억엔(35% 증가)으로 오피스컴퓨터 600억엔(15% 증가), 미니컴퓨터 590억엔(15% 증가)에 비해 신장율이 두드러진다.